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떡볶이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가래떡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양념을 하여 볶은 음식. 양념은 간장으로 하기도 하고, 고추장으로 하기도 한다.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7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떡볶이'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가래떡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양념을 하여 볶은 음식. 양념은 간장으로 하기도 하고, 고추장으로 하기도 한다.

떡볶이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떡볶이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썩복기 사전 표기 요약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떡볶이 사전 표기 요약	—	—	—	—	—	●→
떡복기 문헌 수록 표기	—	—	—	—	—	●→
떡복이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썩복기
  20세기미상

- 떡볶이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썩복기, 떡볶이, 떡복기, 떡복이

떡볶이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떡볶이'의 옛말인 '썩복기'는 20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썩복기'는 떡을 뜻하는 '썩'과 볶다를 뜻하는 '볶-'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볶이'가 결합한 것이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복기'는 '볶이'를 중철 표기한 것이다. 20세기 이후 된소리 표기 'ㅆ'이 'ㄸ'으로 적게 되는 경향에 따라 '떡볶이'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떡볶이

전체 용례 7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떡볶이, 썩복기, 떡복기 외 1종 용례 6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떡볶이, 썩복기, 떡복기, 떡복이

출처 1929 조선일보 1월 9일 3면

용례 01

문헌 용례

정초의 음식에는 썩국 썩복기 약식 가튼 소화되기 어려운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6 동아일보 1월 11일 5면

용례 02

문헌 용례

조선 요리 성분 게산표(끝) 떡볶이 7人分.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62 경향신문 12월18일 7면

용례 03

문헌 용례

신선로, 저냐, 만두, 떡복기 등 한국 음식의 이름을 줄줄 외면서.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69 매일경제 9월17일 4면

용례 04

문헌 용례

추운 겨울날 맵고 뜨거운 떡볶이 한 개만 먹으면 추위는 사라지고 콧잔등에 땀이 솟는 그 맛.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73 동아일보 12월 3일 5면

용례 05

문헌 용례

후배 두 놈이 떡볶이를 해 먹는다면서 고추장으로 벌겋게 떡을 볶아 화실에서 같이 나눠먹은 기억이 있는 것이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91 경향신문 6월 7일 23면

용례 06

문헌 용례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류는 우유이고 그 다음은 빵·라면·떡복이 등 곡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상 썩복기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썩복기

출처 19세기 시의전서

용례 07

문헌 용례

썩복기 다른 씸과 갓치 ᄒᆞ되 잘 된 흰썩을 탕무우쳐로 쎠흐러 좀간 복가 쓰되 씸 ᄌᆡ료 다 드ᄃᆡ 가로즙만 안니 ᄒᆞ나니라.

현대어 풀이

떡볶이 다른 찜과 같이 하되 잘 된 흰떡을 탕무처럼 썰어 잠깐 볶아 쓰되 찜 재료 다 들어가는데 가로즙만 아니 넣느니라.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떡볶이의 보충 설명

‘떡볶이’는 말 그대로 풀이한다면 떡을 볶아 만든 음식이다. 떡을 먹어온 역사가 오랜 만큼 언제부터 떡볶이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지 밝히기는 쉽지 않다. 다만 ‘떡볶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세기경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의전서≫이다. 그렇지만 이때의 떡볶이는 지금은 흔히 ‘궁중떡볶이’라고 하는 떡볶이에 가깝다. 그후로도 요리로서 소개되는 떡볶이는 고기, 채소 등을 넣고 볶는 데 간장으로 양념을 한 떡볶이다. 그래서 ‘떡볶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현재처럼 고추장 등으로 맵게 맛을 내는 떡볶이는 1960년대 무렵부터 퍼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문 기사에서도 1960년대에 ‘맵고 뜨거운’ 떡볶이가 등장하고 1970년대 이후 불량 떡볶이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 궁중떡볶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1970년대까지도 신문 기사에서는 정초 요리로 여전히 예전의 떡볶이를 소개한다. 맵게 맛을 내는 떡볶이는 볶기보다는 끓이는 것이기 때문에 ‘떡볶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는 않는다. 조리 방법은 바뀌었지만 과거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언어에서는 이처럼 사물이 바뀌어도 과거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예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에 박을 켜서 만들던 ‘바가지’를 지금은 박으로 만들지 않아도 여전히 ‘바가지’라고 한다.

떡볶이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윤덕노 2011 《붕어빵에도 족보가 있다》 청보리미디어
- 황교익/정은숙 2013 《서울을 먹다-음식으로 풀어낸 서울의 삶과 기억》 따비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떡볶이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1 / 1 · 2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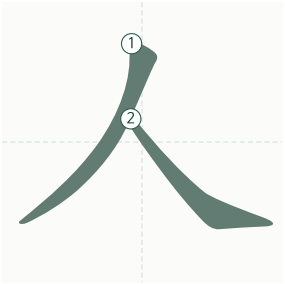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人

뜻·음 사람 인

총 2획 · 부수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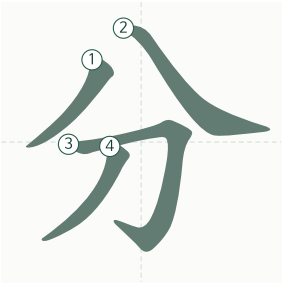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人/

分

뜻·음 나눌 분

총 4획 · 부수 刀





hanja.wordrow.kr/한자/分/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